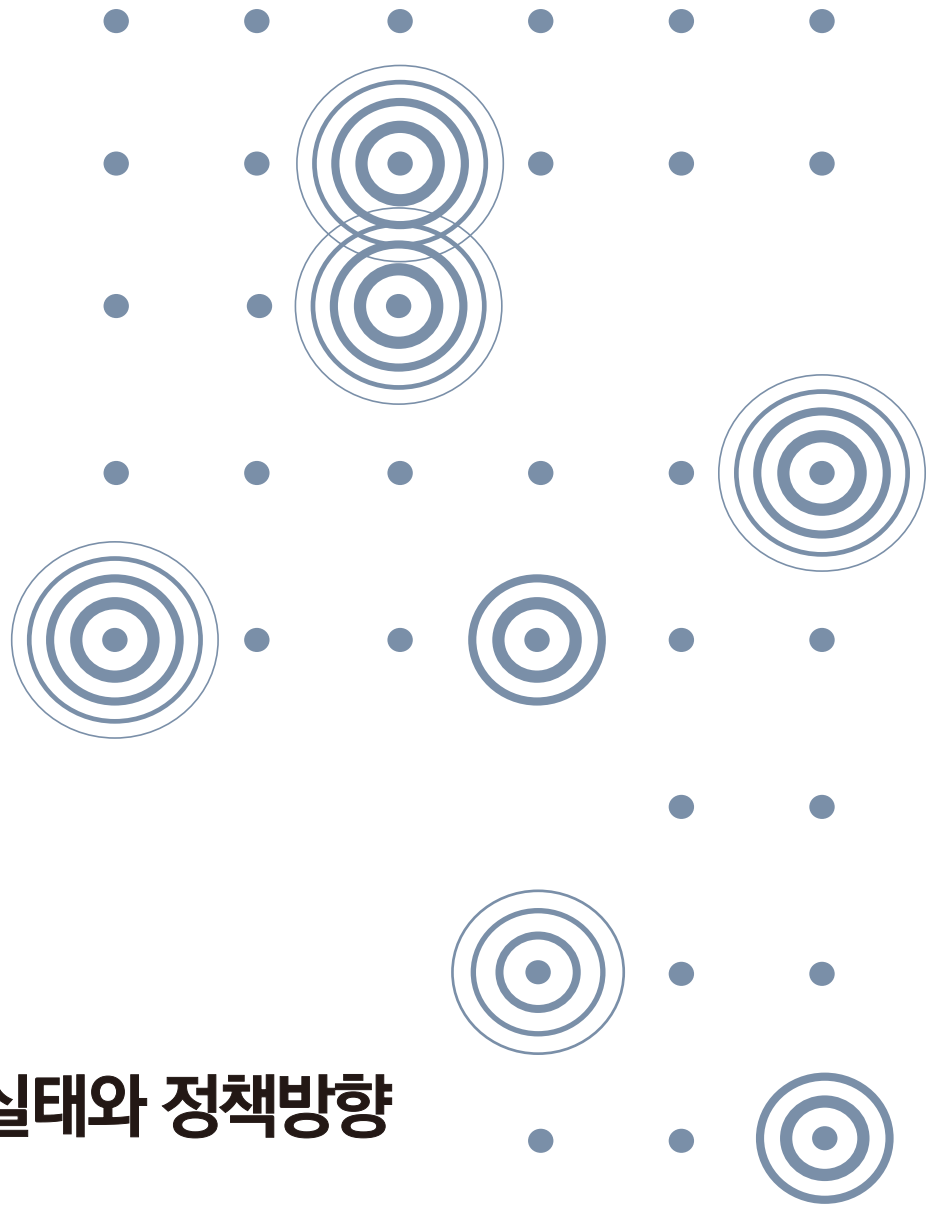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57호 2022. 8. 22



—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방향**

변금선
부연구위원

이혜림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57호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방향

발행인 박형수

편집인 양재섭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2년 8월 22일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방향

변금선 부연구위원 이혜림 연구원
02-2149-1136 02-2149-1414
gsbyun@si.re.kr hyerimm@si.re.kr

요약	3
I. 청년 다차원 빈곤의 의미와 측정 방법	4
II.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	7
III.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위험 요인과 정책 욕구	10
IV. 정책제언	14

요약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의 빈곤 위험이 증가했다. 문제는 청년 빈곤이 소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일자리, 주거 등에 걸쳐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행기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 교육·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청년은 경제 영역 외에 교육·역량, 노동 영역의 빈곤 수준이 높았다. 청년의 빈곤 위험은 빈곤의 영역, 청년의 특성, 생애주기별로 달랐다. 서울의 미래세대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서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파악 필요

전통적으로 빈곤은 아동, 노인 빈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청년 빈곤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소멸로 서울의 미래동력인 청년이 록다운 세대(Lockdown generation, 봉쇄세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성인 초기에 경험하는 다차원적 빈곤은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부모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서울 청년, 자산 빈곤 매우 높아…교육·역량, 노동 빈곤율 높고 중복 결핍 심각

여기서는 청년 빈곤을 ‘성인 초기 사회적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차원적 자원과 기회 결핍, 박탈, 배제된 상태’로 정의한다.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7개 영역(① 경제, ② 교육·역량, ③ 노동, ④ 주거, ⑤ 건강, ⑥ 사회적 자본, ⑦ 복지) 17개 빈곤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 빈곤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 청년 10명 중 9명은 적어도 1개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하였고, 3개 이상 영역이 빈곤 상태인 중복빈곤율은 42.4%였다. 경제 외에도 건강, 사회적 자본, 노동 영역의 빈곤율이 높았다.

서울 청년의 생애주기·이행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세워야

청년의 빈곤 위험은 청년 특성별로 다르다. 특히 18~24세, 고졸과 전문대졸, 1인 가구, 실업과 비재학·미취업 청년의 빈곤이 높았고, 일부 영역에서는 30대, 부모동거 청년 등 전통적 취약계층 외의 빈곤 위험 집단이 포착되었다. 청년의 빈곤 위험은 빈곤의 영역, 청년의 특성,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통적인 소득 중심 지원만으로는 이행기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수립에 있어 비경제적 영역의 빈곤 대응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가구의 이질성과 육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I. 청년 다차원 빈곤의 의미와 측정 방법

I 이행기 청년 빈곤 위험의 증가에 따른 대응 시급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빈곤 위험 가중

-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코로나19로 청년 빈곤의 확대·고착화 위험이 가중될 우려
 - 전통적으로 빈곤은 아동, 노인 빈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청년 빈곤은 취약집단에 한정되거나, 부모에게 독립하는 과정에서 관측되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짐
 - 최근 장기적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불평등 확대로 인해 청년의 빈곤이 확대, 고착화 위험이 점차 커짐
 - 마이너스 성장과 청년실업률 증가, 불안정한 일자리 비율의 증가 등 지난 10년간 청년의 고용환경은 악화됨
 -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20대의 주관적 건강상태도 악화됨

[표 1] 청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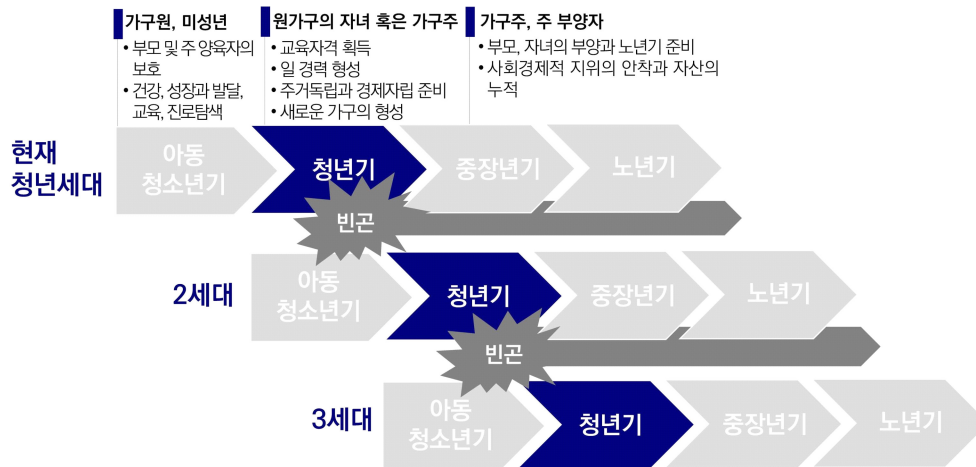
주요 지표	10년 전	현재
경제성장률 ¹⁾	2000년 9.1%	2020년 -2.1%
청년실업률 ²⁾	2000년 2/4분기 7.6%	2020년 10.1%
청년의 첫 일자리 시간제·자영업 비율 ³⁾	2008년 16.1%	2020년 22.3%
계층이동 가능성 ⁴⁾	2009년 48%	2019년 26.9%
20대의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 ⁵⁾	2001년 53%	2018년 41%

자료: 1)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2) 통계청 고용동향 각 연도,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부가조사 각 연도, 4)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5)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이 록다운 세대(Lockdown generation, 봉쇄세대)로 전락 우려
 -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인 근로 연령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자리 감소는 직접적인 소득 상실과 일할 기회의 배제로 이어져 청년기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을 저해

성인 초기의 빈곤,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 미쳐

- 청년 빈곤은 부모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성인 초기에 경험하는 결핍은 이후 생애 전반의 가족 이행(독립과 자립)을 지연시키고, 소득·자산 축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자료: 변금선·이혜림(2020),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서울연구원, 3쪽, [그림 1-1] 재구성

[그림 1] 청년기 빈곤의 영향

I 청년 빈곤, 다차원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

소득만으로 이행기 청년이 마주한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

- 빈곤 문제, 단일 차원의 소득 빈곤에서 상대적 박탈·배제·결핍을 포괄하는 다차원 영역으로 확장
 - 1970년대 이후 소득 빈곤과 더불어 교육, 주거, 건강, 고용, 문화 등 비화폐적 영역을 포함하여 ‘다차원 빈곤’을 측정하는 연구 증가
 -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은 센(A. Sen)의 역량 이론(theory of capability)을 토대로 체계화
 - 센(1985)은 인간이 기본적 삶에 필요한 역량을 “개인이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행위나 상태(doings and bein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집합”¹⁾으로 정의
- 청년 빈곤이란 ‘성인 초기 사회적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차원적 자원과 기회가 결핍, 박탈, 배제된 상태’를 말함
 - 청년기는 교육자격 획득, 일자리 이행, 독립, 가족 형성 등 주요 사회적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기로, 소득 이외에 다양한 자원과 기회 필요
 - 청년은 이행기 사회적 과업별로 빈곤 위험을 마주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부족할 경우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²⁾, 사회적 고립, 부채, 불건강 등 삶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1) Robeyns, I.,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pp.93-117;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7,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집문당, 88쪽 재인용

2) 니트(NEET)는 미취업자이면서 재학생이 아닌 경우(대학교, 공식 직업훈련과정 등 형식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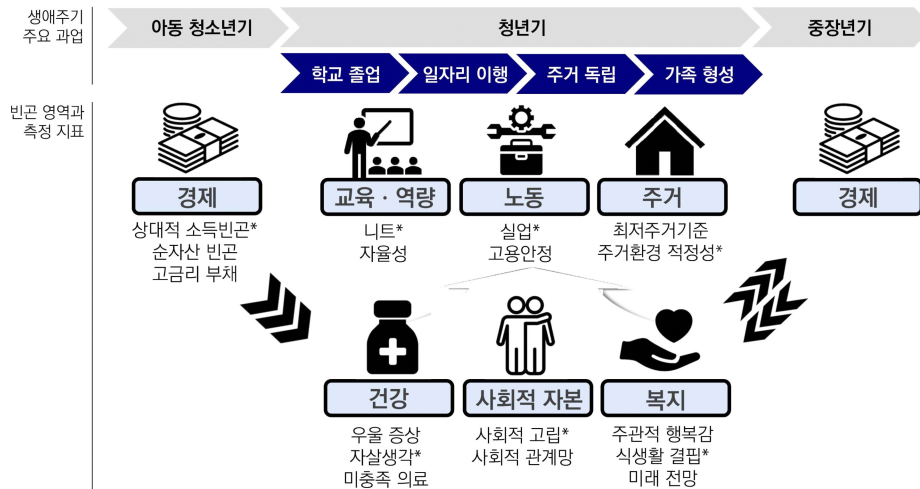
사회적 과업	교육자격 획득	구직과 일자리 이행		주거 분리(독립)	가족 형성
	교육자격	직업 정보	일자리	독립된 주거	새로운 가구 형성
위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비 부담 • 일-학업 병행 • 학업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비용 부담 • 하향 취업 • 정보 비대칭성 (부정확한 채용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임금 • 불안정노동 • 위험한 일터환경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감정노동, 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비 부담 • 범죄 위험 노출 • 열악한 주거 환경 • 주거정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위험 가중 • 가족 돌봄으로 인한 소득상실, 경력단절
결과	저학력 경제적 자립역량 상실	장기실업 구직 포기	근로 빈곤 찾은 이직 이직 포기	주거 빈곤 독립 포기	가족형성 포기 일·생활 포기
니트(NEET), 사회적 고립, 부채부담, 불건강 등					

자료: 변금선·이혜림(2020),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서울연구원, 4쪽, [그림 2-1]

[그림 2] 청년의 이행기 사회적 과업과 빈곤 위험

7개 영역 17개 지표를 적용하여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 확인

-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2020 서울청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
 - 청년의 다차원 빈곤 지표 선정을 위해 3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라운드 델파이 조사 실시
 - ① 경제, ② 교육·역량, ③ 노동, ④ 주거, ⑤ 건강, ⑥ 사회적 자본, ⑦ 복지 등 7개 영역의 17개 지표를 구성하고, 기초역량³⁾ 빈곤측정을 위한 영역별 대표지표 선정
 -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⁴⁾를 활용하여 18~39세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실태 확인



주 1) 자료는 변금선·이혜림(2020),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서울연구원, 37쪽, [그림 2-12]

2) *는 기초역량 지표

[그림 3]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영역 개념도

- 3) 심각한 수준의 결핍, 배제, 박탈 상태를 식별하기 위해 각 영역별 1개씩 기초역량 빈곤 지표를 선정
- 4) 청년의 가계현황과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거주 만 18세~39세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서울시, 2020)

II.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

I 서울 청년의 다차원 영역별 빈곤 특성

서울 청년 10명 중 9명은 적어도 하나의 영역에서 빈곤 경험

- 서울 청년 85.9%, 경제, 건강, 사회적 자본 등 1개 이상 영역에서 빈곤 경험
 - 영역 빈곤율은 경제(52.9%), 건강(40.3%), 사회적 자본(37.4%), 노동(35.4%), 교육·역량(22.9%), 복지(21.3%), 주거(20.3%) 순
 - ‘경제’ 빈곤율이 가장 높지만,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이라 여겨지는 청년층의 ‘사회적 자본’, ‘노동’ 빈곤도 높은 수준
- 지표 빈곤율은 ‘순자산 빈곤(48.7%)’, ‘우울(35.4%)’, ‘사회적 고립(35.2%)’, ‘고용안정(34.3%)’, ‘최저 주거기준(19.1%)’ 순
 - 전통적 빈곤 측정지표인 소득 빈곤율은 11.9%였지만,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면 경제 영역 빈곤율은 52.9%로 증가. 자산을 소유하기 어려운 청년 특성이 반영된 결과
 - 특히 경제적 지표인 ‘순자산 빈곤’ 다음으로 ‘우울’,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과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표의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

[표 2]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

차원	지표명	측정 방법	지표 빈곤율		영역 빈곤율	
			명	%	명	%
경제	상대적 소득빈곤*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357	11.9	1,586	52.9
	순자산 빈곤	본인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3개월간 최저생활(중위소득 50%)을 유지할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1,462	48.7		
	고금리 부채	고금리 대출(대부업체 대출)이 있는 경우	64	2.1		
교육·역량	니트*	현재 취업하지 않고, 형식교육(학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음	424	14.1	687	22.9
	자율성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역량 혹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335	11.2		
노동	실업*	실업 혹은 구직단념자	243	8.1	1,061	35.4
	고용안정	[취업자만 응답]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일용근로자이거나 한 명의 직원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포함)	818	34.3		
주거	최저주거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주거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72	19.1	610	20.3
	주거환경 적정성*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	77	2.6		
건강	우울 증상	우울 증상 수준이 우울증 의심인 경우	1,061	35.4	1,208	40.3
	자살 생각*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경우	301	10.0		
	미충족 의료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	221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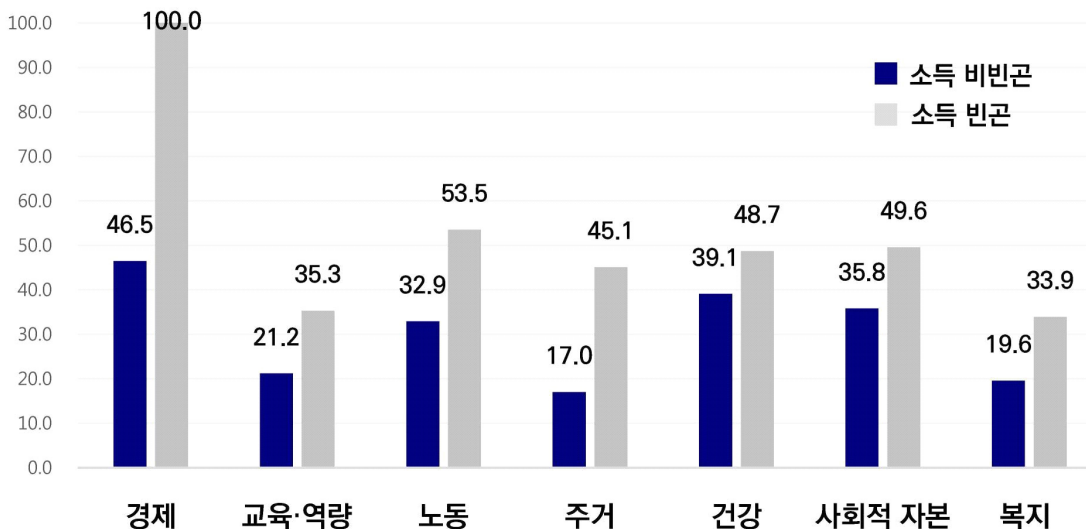
차원	지표명	측정 방법	지표 빈곤율		영역 빈곤율	
			명	%	명	%
사회적 자본	사회적 고립*	어려울 때 가족이나 친지 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1,055	35.2	1,122	37.4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25	7.5		
복지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 수준 혹은 삶의 만족 낮음, 매우 낮음	297	9.9	638	21.3
	식생활 결핍*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하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	253	8.4		
	미래 전망	향후 5년간 본인 소득에 대한 부정적 전망	274	9.1		

주 1) 분석자료는 서울시,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

2) *는 기초역량 지표

단일 차원의 소득 빈곤은 청년 빈곤을 과소 추정할 위험

-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할 수 있음
 - 소득 빈곤 여부에 따른 영역별 빈곤을 확인한 결과(그림 4), 소득 빈곤 청년은 모든 영역에서 빈곤율이 높았으며, 특히 소득 빈곤 청년은 노동과 주거 영역의 빈곤율이 크게 높았음. 한편, 소득 빈곤 상태가 아니어도 건강(39.1%), 사회적 자본(35.8%), 노동(32.9%)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
 - 영역별 빈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경제 영역 이외 영역 간 상관관계가 높았음
 - 상관계수는 복지와 건강(0.264), 복지와 사회적 자본(0.248), 경제와 주거(0.232), 경제와 노동(0.225), 복지와 교육·역량(0.180)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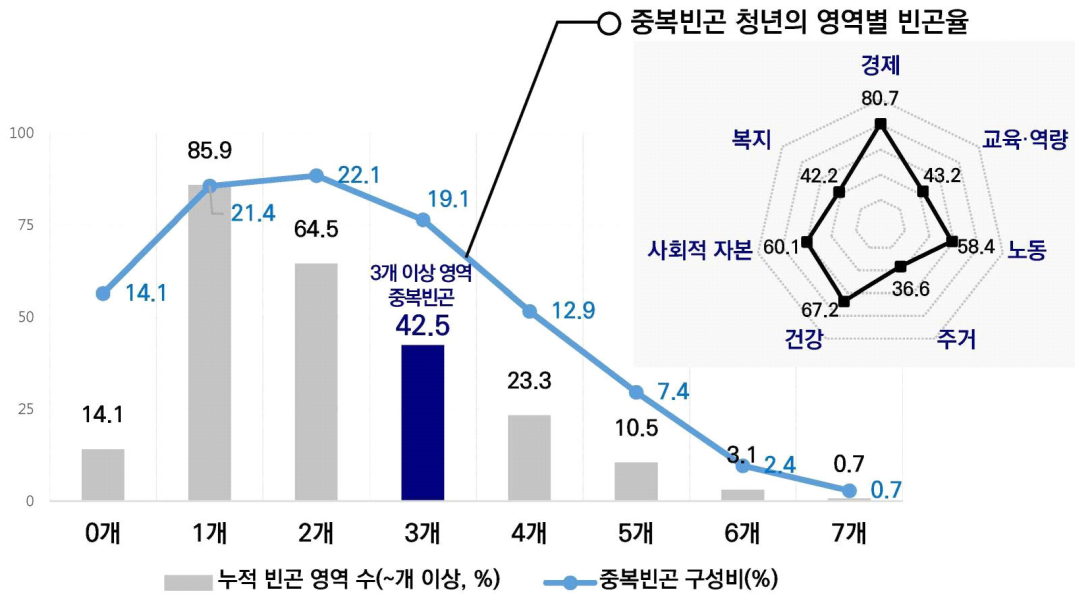
주: 분석자료는 서울시,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

[그림 4] 소득 빈곤 여부에 따른 영역별 빈곤율

I 서울 청년의 중복 빈곤 실태

서울 청년 42.5%가 3개 이상 영역 중복 빈곤, 5개 이상 영역의 빈곤 청년도 10.5%

- 서울 청년의 42.5%가 3개 이상 영역 빈곤, 5개 이상 영역에서 빈곤한 청년은 10.5%
 - 2020년 7월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청년 인구(311만 4,704명⁵⁾)를 적용하면, 3개 이상 영역 중복 빈곤 상태인 청년은 약 32만 7천 명에 이릅니다



주: 분석자료는 서울시,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

[그림 5] 중복 빈곤 구성비와 중복 빈곤 청년의 영역별 빈곤율

- 서울 청년의 55%가 기초역량 빈곤을 겪고 있으며, 기초역량이 3개 이상 결핍상태인 청년은 8.7%, 5개 이상인 청년은 0.5%
 - 심각한 수준의 결핍, 배제, 박탈 상태를 식별하기 위해 영역별로 1개씩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기초역량 빈곤실태를 분석함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면 5개 이상의 기초역량이 결핍되어 정책지원이 시급한 청년의 규모는 약 1만 5,573명에 이릅니다

중복 빈곤 청년은 경제, 건강, 사회적 고립 빈곤율이 가장 높아

- 중복 빈곤 청년의 영역별 빈곤율은 경제(80.1%), 건강(67.2%), 사회적 자본(60.1%), 노동(58.4%), 교육·역량(43.2%), 복지(42.2%), 주거(36.6%) 순으로 높음

5)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거주지 기준으로 할 경우, 청년 인구는 더 증가할 수 있음. 이 연구에 활용한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여기서 제시한 빈곤 위험 청년 인구는 보수적 추정 결과임

Ⅲ.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위험 요인과 정책 욕구

Ⅰ 청년 특성에 따라 빈곤율 높은 영역이 다르게 나타나

청년 특성별로 영역별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새로운 빈곤 위험 집단 포착 가능

- 18~24세, 고졸과 전문대졸, 1인 가구, 실업과 비재학·미취업 청년의 빈곤율이 높음
 -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사회적 자본, 복지, 건강의 빈곤율이 높음
 - 실업, 비재학·미취업은 경제, 노동, 주거, 복지 영역 이외에 사회적 자본 결핍 빈곤도 높음
 - 사회적 자본 빈곤율은 실업→비정규직→비재학·미취업자 순
 -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이 사회적으로 단절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줌
- 일부 영역에서는 30대 혹은 부모동거 청년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30대는 20대보다 대부분 영역에서 빈곤율이 낮았으나, 사회적 고립과 사회관계망 결핍을 반영하는 '사회적 자본' 빈곤은 30대가 더 취약했음
 - 또한, '부모동거' 청년이 전통적 취약집단인 1인 가구 청년보다 경제, 교육·역량, 노동 빈곤율이 더 높았음
 -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은 부모동거 청년의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

빈곤 영역별로 빈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 영역별 빈곤 위험을 증가·감소시키는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
 - 남성은 사회적 자본 빈곤 위험이, 여성은 건강 빈곤 위험이 높음
 - 20대는 경제, 주거 빈곤 위험이 크고, 사회적 자본과 복지 빈곤 위험은 낮은 반면, 30대는 사회적 자본 빈곤 위험이 큼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이행기 사회적 과업과 직접 관련된 노동과 교육·역량 그리고 귀속지위의 역할을 하는 경제 빈곤 위험이 크고, 1인 가구는 주거와 복지 빈곤 위험이 큼
 - 취업, 미취업,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은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 빈곤 위험을 높임
- 가구소득은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위험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 빈곤측정 기준으로서 가구소득은 한계가 있지만, 낮은 가구소득이 청년의 다차원 빈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남
 - 낮은 가구소득은 교육역량, 노동 등 사회적 과업 이행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자본, 복지, 건강영역 빈곤 위험을 높임
 -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과 소득 이외의 기준을 적용해 청년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차원 빈곤 수준이 높은 저소득가구 청년에 대한 집중지원 병행 필요

[표 3] 청년 특성별 빈곤 위험의 차이

	특성	경제	교육·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
빈 곤 위 험 (+)	여성		◆	◆		● ◆		
	남성						● ◆	
	20대	● ◆		◆	● ◆			
	30대						● ◆	
	1인 가구	◆			● ◆			●
	부모동거	●	● ◆	● ◆				◆
	비정규직	◆			◆	●	● ◆	● ◆
	미취업	◆	●			● ◆	◆	●
	저학력	● ◆						
	저소득		◆	● ◆		● ◆	● ◆	◆
빈 곤 위 험 (-)	여성						◎ ◆	
	남성		◇	◇		◎ ◆		
	20대						◎ ◆	◎
	30대	◎ ◆		◇	◎ ◆			
	1인 가구	◎	◎ ◆	◎ ◆				
	부모동거	◇			◎ ◆			◎ ◆
	정규직	◇			◇	◎ ◆	◎ ◆	◎
	고학력	◎ ◆						
	고소득		◎ ◆	◎ ◆		◎ ◆	◎ ◆	◇

주 1) 분석자료는 상동(上同), 표 출처는 변금선·이혜림(2020),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서울연구원, 95쪽, [표 5-1]
 2) 영역별 빈곤 여부를 종속변수로,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선형확률회귀분석 결과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같을 때 해당 요인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함
 3) 각 특성이 해당 영역에서 빈곤할 확률을 높이면 (+), 낮추면 (-)
 전체 지표 빈곤 (+) ●, (-) ◎, 기초역량 빈곤 (+) ◆, (-) ◇

Ⅰ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 특성을 고려한 욕구 진단

서울 청년, 경제, 건강, 사회적 자본 영역 정책 확대 필요

- 청년 특성별로 영역별 빈곤율이 높은 영역과 각 영역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1.5배 이상 높은 영역을 반영해 정책 욕구 수준 진단
 - 청년 대부분 경제, 건강, 사회적 자본 영역의 정책 욕구 높음
 - 대체로 저소득가구 청년의 빈곤 위험이 컸으며 노동은 20대 초반,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주거는 20대 초반과 기타 가구, 실업인 경우 정책 욕구 높음

[표 4] 서울 청년의 특성별 정책 욕구 진단

구분		경제	교육·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
전체		●				◎	○	
성별	남성	●				○	◎	
	여성	●				◎	○	
연령	18~24세	●		◎ ▲	▲	○		
	25~29세	●				◎	○	
	30~34세	◎				○	●	
	35~39세	○				◎	●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		◎ ▲	▲	○		
	전문대 졸업	●				◎	○	
	4년제 졸업	●				◎	○	
	대학원 재학 이상	●				◎	○	
가구 유형	1인 가구	●				○	◎	
	부부 무자녀	○				◎	●	
	부부 유자녀	○				◎	●	
	부모동거	●		◎		○		
	기타	●		○	▲	◎		
경제 활동 상태	정규직	◎	-	-		●	○	
	비정규직	●	-	-		◎	○	
	실업	●	-	-	▲	◎	○	
	재학	●				◎	○	
	비재학·미취업	●	-			◎	○	
소득 빈곤	비빈곤	●				◎	○	
	빈곤	-	▲	● ▲	▲	○	◎	▲
소득 수준	1분위	-	▲	● ▲	▲	○	◎	▲
	2분위	●				◎	○	
	3분위	●				◎	○	
	4분위	●				◎	○	
	5분위	●				◎	○	

주 1) 분석자료는 상동(上同), 표 출처는 변금선·이혜림(2020),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서울연구원, 97쪽, [표 5-2]
 2)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상대적 빈곤 위험(해당 영역 전체 빈곤율로 나눈 값) 1.5배 이상

20대와 30대, 기초역량 중복 빈곤 양상이 확연히 달라,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 20대와 30대가 경험하는 다차원 빈곤의 이질적 특성을 비교하고, 빈곤 위험을 높이는 특성을 가질 때 기초역량 중복빈곤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
 - 전통적인 빈곤 요인으로는 미취업, 저학력을 고려
 -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0대는 1인 가구, 30대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빈곤 위험을 높이는 취약성으로 가정

- 20대의 기초역량 중복빈곤율은 9.7%인데, 1인 가구, 미취업, 고졸·전문대졸 청년은 24.1%
 - 20대 1인 가구이면서 고졸 혹은 전문대졸 학력을 갖고,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기초역량 중복빈곤율은 34.2%였음
- 30대의 기초역량 중복빈곤율은 8.7%인데, 부모동거, 미취업, 고졸·전문대졸 청년은 16.2%
 - 30대의 중복빈곤율은 7.6%로 20대보다 낮은 수준이나, 부모와 동거하는 30대의 기초역량 중복빈곤율은 8.7%로 높아짐
 - 30대에 부모와 동거하는 미취업 청년의 중복빈곤율은 46.8%로 크게 높아짐
 - 30대에 부모와 동거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혹은 전문대학 졸업 청년의 중복빈곤율은 16.2%로, 30대 전체 빈곤율의 2배 수준

[표 5] 청년 특성에 따른 중복빈곤율 변화

구분		사례 수 (명)	평균 결핍 수(개)		3개 이상 중복결핍 (명, %)	
			전체	기초역량	전체	기초역량
전체(명, %, 개)		3,000	2.23	0.90	1,273명 42.4%	261명 8.7%
20대	20대	1,582	2.58	0.97	50.2	9.7
	20대 1인 가구	304	2.63	1.33	51.6	19.4
	20대 1인 가구 미취업	62	3.48	2.29	74.2	50.0
	20대 1인 가구 고졸/전문대졸	137	3.07	1.66	63.5	24.1
	20대 1인 가구 고졸/전문대졸 미취업	41	3.29	1.93	68.3	34.2
30대	30대	1,418	1.99	0.83	33.8	7.6
	30대 부모동거	507	2.19	0.88	37.3	8.7
	30대 부모동거 미취업	77	3.57	2.36	71.4	46.8
	30대 부모동거 고졸/전문대졸	142	2.97	1.15	55.6	16.2
	30대 부모동거 고졸/전문대졸 미취업	31	4.35	2.71	90.3	61.3

주: 분석자료는 상동(上同), 표 출처는 변금선·이혜림(2020),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서울연구원, 96쪽, [표 5-4]

IV. 정책제언

I 서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방향

비경제적 빈곤을 고려해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다차원 빈곤 높은 청년을 집중 지원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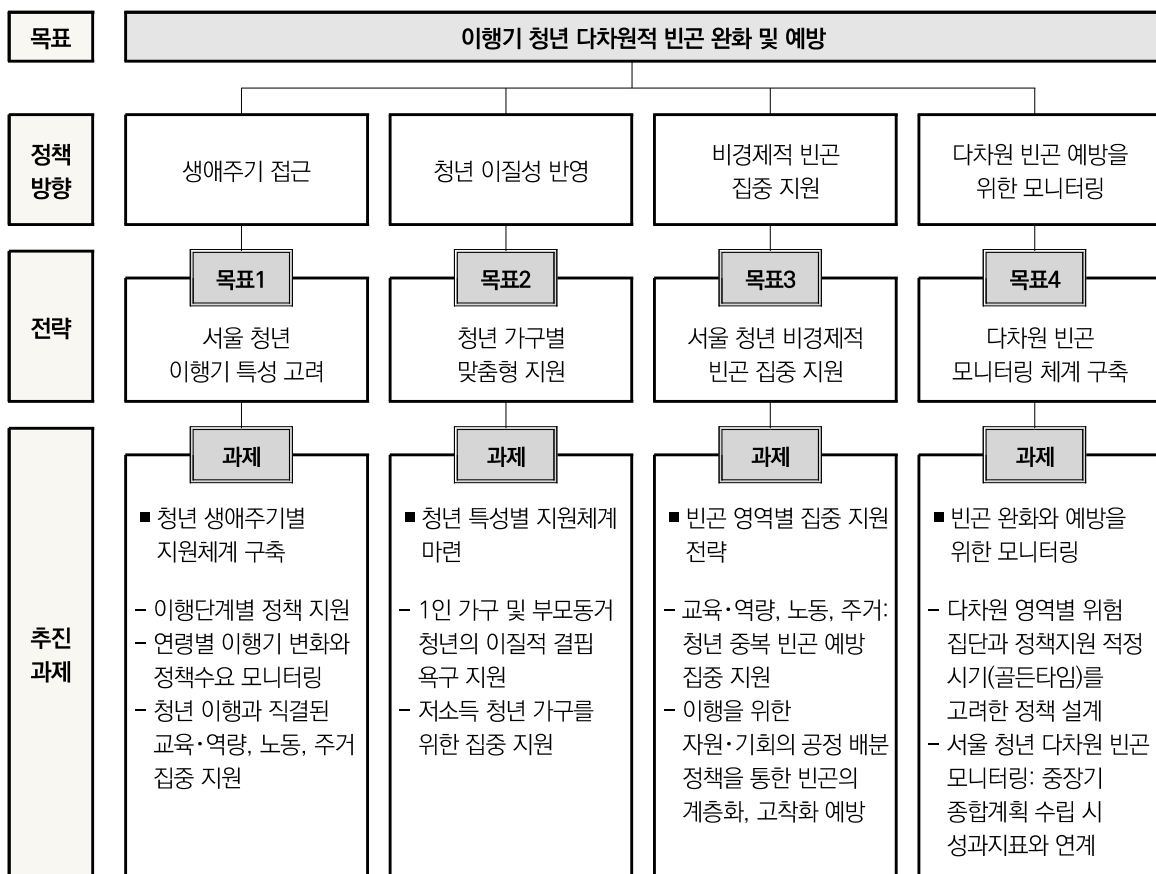
- 청년 빈곤은 소득이라는 경제적 자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 다수가 소득 기준으로 대상 선정
 - 경제와 주거, 노동 이외에 교육·역량, 복지와 건강, 사회적 자본에서도 청년 빈곤 위험이 크게 나타남
 - 다차원적 영역 빈곤 청년을 식별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정책 대상 확대 필요
- 3개 이상 영역 중복빈곤율이 높은 20대, 저학력, 미취업, 실업, 저소득 가구 청년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 20대, 실업, 비재학·미취업, 저소득, 1인 가구와 같은 특성이 청년의 중복 빈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이 직면한 다차원적 자원과 기회의 결핍과 배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방향

- 청년의 이행기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
 - 생애주기에 따른 이행기 변화와 정책 욕구를 진단하여, 청년의 빈곤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
 - 특히 노동, 교육·역량, 주거 등의 비경제적 영역 빈곤과 30대 청년에 집중된 사회적 자본과 복지 영역 빈곤 위험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
- 서울 청년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
 - 서울 청년은 1인 가구와 부모동거 가구 여부에 따라 빈곤 위험 영역과 중복 빈곤 위험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과 1인 가구 청년에 맞춤형 정책 전략 수립 필요
- 비경제적 영역 빈곤 대응을 위한 집중 지원
 - 서울 청년은 소득 빈곤보다 자산 빈곤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경제적 영역 보다는 비경제적 영역(특히 교육·역량, 노동, 주거)의 빈곤 위험이 컸음
 - 비경제적 영역 빈곤은 다른 영역의 중복 빈곤을 높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집중 지원하여 청년 빈곤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필요

○ 청년의 다차원 빈곤실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청년의 다차원 빈곤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성과지표로 활용할 필요
 - 다차원적 빈곤 지표와 분석결과는 서울시 청년정책 영역별 청년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는 데 유용
 - 서울청년패널조사⁶⁾ 등 서울시 청년의 삶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 조사자료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서울 청년의 다차원 빈곤 변화를 확인하는 지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



[그림 6]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 빈곤 예방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과 과제

6)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이행기 청년의 삶의 실태와 변화를 추적 조사함. 2020년 패널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 2021년 1차 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현재 2차 본조사 진행 중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